서울도서관 장서구성 및 수집 계획

1 장서구성기준

□ 방침 목적

❍ 균형 있는 장서 구성

❍ 서울학 중심 전문 장서 구축

❍ 자료 선택과 수집에 대한 기준 제시

❍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장서구성 기본원칙

❍ 기본 근거

-『서울도서관 자료선정기준』(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대표도서관 기능과 역할 조정계획』(시장방침 제86호,2012.3.25.)의 장서구성 중・장기 계획

❍ 일반 기준

-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도서관 목적과 목표, 역할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서울시민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장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양자료에서부터 시민의 평생학습과 직업교육, 전문성 있는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기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서울시에 관한 자료는 최우선으로 수집한다.

- 사회경제적 이유(고가 등)로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 사상과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배제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선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타 저명한 독서단체 등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또는 추천, 권장도서 등은 최대한 수집한다.
-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고전으로 인정된 저작과 우선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발행년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
- 도서관 정책개발과 도서관 연구와 지원을 위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관련 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사전류(언어사전, 인명사전, 지명사전 등)와 도감, 통계, 주요국 연감 등 참고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집한다.
- 외국에서 발행한 외국자료는 이용자 수요와 서울도서관 장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 도서관자료 복본 수집에 있어 그 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존 필요성과 이용정도, 잠재적 수요, 복사 등에 따른 훼손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기타 『서울도서관 자료선정기준』(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과 『대표도서관 기능과 역할 조정계획』(시장방침 제86호, 2012.3.25)의 장서구성 중・장기 계획 기준에 따른다.

□ 세부장서구성 원칙

❍ 일반자료

- 매월 출판 현황을 조사하여 발행 후 늦지 않게 수집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나 대형서점 등의 출판 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 언론기관이나 학계, 기타 전문가 추천도서는 우선하여 수집한다.

❍ 어린이자료

- 서울도서관 입지와 공간에 따른 이용의 불특정성, 인근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자료 비중은 전체장서 5% 이하로 하고, 유아도서는 배제한다.
- 국제아동도서협회 아동문학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도서를 수집한다.
-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우선 수집한다.
  - · 어린이 정서를 함양시키는 자료
  - · 어린이 창의성과 논리성, 탐구심,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자료
  - · 공인된 기관과 독서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이용도가 높다고 검증된 자료
- 독서지도전문가나 어린이자료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자료 목록을 확보하여 수집한다.

❍ 외국자료

- 서울의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증가와 이용자의 외국도서 이용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도서 비중은 전체장서의 10~15%로 한다.
-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주제별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세계 각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시 자매도시 관련 도서는 우선 수집한다.
- 연구와 저술 등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와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 우리나라와 서울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 외국어로 출판된 자료는 빠짐없이 수집한다.
- 서울시정 행정업무 관련 외국 간행물이나 우리나라 주변국 정세와 사회, 경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UN가입국 등 해당국가 문화나 사회, 지리, 역사, 가치관 등에 대한 자료는 각국 대사관·문화원 등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다.
- 다문화자료나 다국어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집한다.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각국 언어로 출판된 다문화자료를 수집하되, 이용대상자의 정보요구나 해당국가 출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집
  ·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벡, 캄보디아, 러시아 등 비영어권에서 출판 자료
  · 해당 국가 역사나 문화, 문학 자료 우선 수집
  · 해당 국가의 분야별 우수추천자료나 수상작 우선 수집

❍ 장애인자료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큰글자도서나 점자도서, 점자라벨도서, 녹음도서, 영상수화자료 등 자료를 수집한다.
- 장애인자료 제작기관 목록이나 인터넷 자료, 도서관 서지DB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나 선호와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서울학 관련 자료

- 서울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에 관한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자료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다.
  · 서울학과 관련한 학술 또는 예술, 관광 안내 등 관련 자료
  · 서울시 행정과 정책 관련 자료는 모두 수집
- 서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돕는 자료는 보존과 이용을 고려하여 3권 이내로 수집한다.
- 서울도서관에서 수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서나 희귀서, 필사본을 수집한다. 이때, 귀중서나 희귀서, 필사본 기준은 서울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따른다.

고서와 귀중본의 선정기준

○ 근　거 : 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 자료선정기준 2호
○ 고　서 : 한국 책은 1910년 이전에 간행도거나 필사된 것, 중국 책은 1911년 이전, 일본 책은 1857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것을 고서로 함
○ 귀중서 : 저작의 역사성, 간행과 필사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장정의 특이성, 재화로서의 경제성, 학술연구의 원 자료로서의 가치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한국 책은 조선시대 인조까지나 병자호란(1638년)까지 간행된 것
- 중국 책은 1505년 홍치 이전의 것, 1368 명 이전, 1521년 정덕 이전 간행된 것
- 일본 책은 1592년 문록 이전, 1614년 경장이전 간행된 것
- 서양 책은 서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서

- 행정간행물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수집한다.
  · 서울시와 중앙정부, 기타 자치단체 간행물은 모두 수집한다.
  · 서울시 행정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공정보(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간행물을 우선 수집한다.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빠짐없이 수집한다.
  · 서울시 이외 지방자치단체 행정간행물이라도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집한다.

❍ 비도서자료

- 장서구성이나 배제에 있어서 일반 원칙을 따르되, 비도서자료 특성을 고려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온라인 전자자료 (전자책)

<내용기준>

· 최근 1~2년 이내에 제작되어 보급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인쇄자료 가운데 이용도가 높은 자료 중 전자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쇄자료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선정한다.

· 이용자 구입 희망도서 가운데 전자책으로 발간된 자료는 선정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선정하되,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제 분야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전자책 본문 편집 구성이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료를 선정한다.

·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전자자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서비스 기능요건>

·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책 관리시스템 상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자료를 선정한다.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통용되고 주요 O/S 프로그램과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가능한 자료를 선정한다.

· 전자자료 파일이 다운로드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지 않은 크기의 자료를 선정한다.

· PC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공급업체 선정기준>

· 전자자료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원본 자료의 수급 체계가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한다.

·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자료 납품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한다.

·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의 문의에 충실히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한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자자료 종수가 많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사용하고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하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저자나 출판사 등 원 저작자와의 계약관계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마찰을 빚은 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전자책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도서관 업무 환경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 확보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공과 설치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다.

· 도서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전자자료를 납품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기존 운영 솔루션에 문제없이 탑재하도록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 납품 받은 전자책에 대하여 기술적 결함이나 오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개선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전자책 시스템 확장과 변경, 콘텐츠 업데이트 시에도 정상 가동을 위한 해당 기술 지원과 신속한 갱신(업데이트)아 가능한 업체를 선정한다.

온라인 전자자료 (Web DB)

· 이용률이 높고 인지도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다.

· 전문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다.

· 양질의 고급정보 등으로 시민의 지식격차 해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다.

오프라인 전자자료 (오디오북,DVD)

· 원칙적으로 서울도서관 '장서구성 기본원칙'과 '장서구성 배제원칙'을 따르되, 전자자료의 특성을 반영한다.

· 이용자의 평생교육과 여가·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한다.

· 교양과 교육용 자료를 우선 수집하되, 한국십진분류(KDC) 체계에 따라 균형 있게 장서를 수집한다. 단, 어린이 자료는 5% 미만으로 한다.

· 영어 등 오디오북은 전체의 5~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영화자료는 작품성을 인정 받은 국·내외 작품을 선정한다.

· 단행본으로 이미 소장한 도서라도, 다양한 매체를 수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이용 중 파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는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납품과 콘텐츠 유지보수에 책임감 있는 업체 녹음자료를 선정한다.

·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정한다.

· 컴퓨터 운영체제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청취할 수 있는 최적화된 포맷의 자료를 선정한다.

· 녹음자료는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전문성우가 녹음한 녹음자료를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속간행물

<일반기준>

· 교양 또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주제 분야 별 이용자의 구독경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이미 구독 중인 간행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간기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를 선정한다.

· 생활, 평생교육 관련 자료 우선 선정한다.

· 영어권과 일어, 중국어권 등 주변국 인문·사회계 학술지 우선 선정한다.

· 서지적 참고도구로서의 자료를 선정한다.

· 시대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창간된 잡지는 선정한다.

· 집필진과 편집진의 권위가 있는 잡지를 선정한다.

· 서울시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잡지나 학술지를 선정한다.

<자료실별 선정기준>

· **일반자료실(어린이)** : 어린이 교양, 과학, 독서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어린이 잡지 비중은 전체 연간물의 5%이하로 함.

· **장애인자료실** : 장애인 관련 큰 글자와 점자형태의 간행물 선정

· **세계자료실** : 영어권과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인문사회 학술지와 서울시정 행정업무에 참고가 되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 등 주제의 외국 전문 학술지 선정

· **디지털자료실** : 시사, 인문, 취미, 여행, 예술, 어학 관련 매거진 등 국내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잡지와 참고적 성격의 자료 선정

· **서울자료실** : 서울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연속성 있게 수집

· **웹 매거진** : 오프라인 잡지와 별도로 웹 공간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잡지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Crossroad, Edge재단의 edge 같은 웹 저널, 네이버 잡지 등 무료 웹저널 등 제공

2 장서수집기준

☐ 자료구입원칙

❍ 구입자료 선정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이용자 희망도서와 각 자료실 요청도서, 전시 등 행사용 자료, 추천권장도서 등은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 내부위원 심의로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 고서나 귀중자료는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로 결정한다.

❍ 희망도서 경우 신속한 정보제공과 독서활성화를 위해『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우선 구입한다. 단, 이용율이 높은 도서와 해당 주제에 소장 도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기구입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이용자가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권수는 1인 1년 15권 또는 1월 3권 이내로 한다.

❍ 구입은 1종 1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나 전시등 행사용 자료, 추천도서, 파·오손도서, 장기연체도서 및 기타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복본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3권 이내로 복본을 구비할 수 있다.

☐ 자료기증원칙

❍ 일반자료

- 수증이나 기증, 교환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과 관리, 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는 제외한다.

  · 과도한 복본도서

·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 또는 유해자료

- 기증자료의 처리는 서울도서관 자료기증처리 기준 (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별지 제2호])과 기증자료 운영지침(정보서비스과-1657, 2012.12.6)에 따른다.

❍ 서울시 발간자료

- 서울시(자치구 포함) 행정과 관련하여 발행한 자료는 납본(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되, 영리적 목적으로 발행된 자료 경우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서울시 발간자료의 납본(제출)관련 법규

○ 납본근거 :도서관법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 내 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함

-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 시의 출자.출연 법인
-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법인.개인.단체

- 발간자료의 수집과 처리는 서울시 발간자료 배부시스템에 따른다.

3 장서구성 배제 기준

☐ 장서구성 배제 기본원칙

- ❍ 유아대상 도서와 간행물(서울도서관 입지와 공간에 따른 이용상황, 인근 서울시교육청 운영 어린이도서관 등을 고려)
- ❍ 각종 시험을 위한 수험서나 어학용 교재(어린이 영어 교재, 어학시험용 교재 등), 만화, 문제집, 판타지, 로맨스 소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 ❍ 영리목적.정치목적 자료와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 ❍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 ❍ 가족과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 가격 확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자료
- ❍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 전자자료 경우, 특정 O/S나 기기,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자료

☐ 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

<내용적 기준>

- ❍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도서. 단, 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출판된 지 2년 이상 된 도서
  (단, 이용률이 높은 도서와 해당 주제에 소장 도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기구입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
- ❍ 문제집과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무협지, 웹

툰, 라이트노벨, 등 각종 만화류

❍ 연감이나 백서, 보고서, 참고도서류

❍ 영리목적·정치목적 자료와 미풍양속이나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와 19세이상 선정적인 도서

❍ 정기간행물과 전자자료(전자책, DVD 등 비도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비도서 구입 지침에 따른다)

❍ 외국도서와 유아도서, 특정분야 전문 도서

<형태적 기준>

❍ 고가도서(5만원 이상)와 외국도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또는 전집도서, 기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

❍ 스프링 제본 또는 낱장자료(리플릿), 입체도서, 악보, 필사책, 색칠공부 등 책 크기가 너무 작거나 소리가 나는 도서 등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형태 자료

❍ 소장자료나 구입중 또는 정리중 도서, 신청 또는 주문중복도서

❍ 서지불명도서나 미간행도서, 비매품, 품절이나 절판 및 유사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 신판이 발간되었음에도 구판을 신청한 경우

※ 희망도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기구입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구입

☐ 오프라인 전자자료(오디오북, DVD) 선정 제외 기준

❍ 일시적인 유행에 민감한 것과 오락, 게임, 로맨스 소설, 무협지와 노

골적인 성적묘사를 담은 자료는 배제한다.

❍ 유아 대상 자료 및 어학교육 목적의 오디오북은 배제할 수 있다.

❍ 녹음자료의 경우 완독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책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책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녹음한 자료는 배제한다.

❍ 녹음자료(오디오북)는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정기간행물 선정 제외 기준

❍ 웹매거진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업적인 잡지 및 게임이나 만화관련 잡지

❍ 기타 서울도서관 장서구성 배제원칙을 따름